

2009 을지연습

글 윤원영(총무시설안전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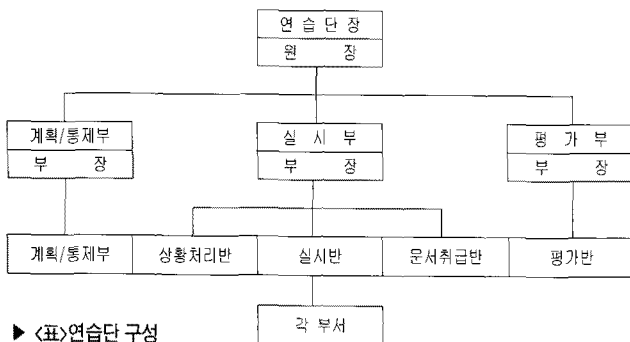
우리 연구원은 지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2009 을지연습”을 실시하였다. 을지연습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위기관리 상황별 대처능력을 숙달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번 호를 통하여 을지연습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자.

■ 2009 을지연습

2009 을지연습은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동안 이루어졌다. 이 연습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등 4,000여 기관, 40만 명이 참가하여 유사시 국가 안보와 시민 안전을 위한 대비절차와 실제 훈련이다. 또한, 시민 안전과 밀접한 고층건물 재난사고, 지하철 사고, 전염병 발생, 국가기반시설 보호 등 위기 상황을 가정한 대비훈련과 문화재 보호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되었다.

■ 을지연습 연습단

우리 연구원은 2009 을지연습을 위하여 연습단을 구성하였다. 연습단은 계획통제부, 실시부, 감사부 등 3부로 구성하고, 계획통제부 내에 계획통제반을, 실시부 내에 상황처리반, 실시반, 문서취급반을, 평가부 내에 평가반을 두었다. 연습단은 1일 11명 총 4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었다.



▶ <표>연습단 구성

■ 을지연습 주요 일정

2009 을지연습 주요 일정을 살펴보자. 첫째 날 오전 6시, 을지 3종 사태가 선포되면서 비상소집이 시작되었다. 연구원 총원에서 교육, 출장, 휴가자 등을 제외한 응소 대상 인원 전원이 참가하여



▶ 을지연습 상황실

100% 응소율을 보였다. 10시부터는 전시 직제편성 훈련이 진행되었다. 전시 직제편성 훈련은 전시 직제와 동일하게 기구와 정원을 편성하여 전시에 근무할 부서와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조직과 개인의 임무를 확인하는 훈련으로 정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훈련이다. 우리 연구원의 경우 종합상황실, 과학기술지원반, 이동통제반, 사상자대책처리반, 사이버위기대응센터 등 5개 전시 조직을 신설하고, 전시 편성자들은 전원 인사발령을 통하여 전시조직으로 응소하여 개인의 임무와 역할을 확인하는 등 메시지 중심의 형식적 훈련에서 탈피해서 실질적인 행동훈련을 유도함으로써 전시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보하게 되었다.

둘째 날은 전시 주요 현안사안인 과학기술위성 3호 지구관측 적외선 카메라 개발에 대하여 토의가 있었고, 오후에는 한국국방연구원 김구섭 원장을 초빙하여 “북한의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를 갖고 안보 강연을 실시하였다. 강연주제가 매우 현실성이 있어 직원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으며, 북한 정세에 대한 이해와 안보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날은 주요 장비의 소산 및 전 직원 대피의 실제훈련이 실시되었다. 이 훈련은 전 직원이 대덕전자천문대 지하(1차 소산장소 : 간의대 뒤편)로 대피하고, 우주측지장비 등 모든 핵심부품을 파손 없이 1차 소산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이 주된 훈련 목적이었다.

■ 결론

이번 을지연습은 예전의 보는 훈련에서 벗어나 비상소집, 전시 직제편성훈련, 실제훈련, 안보 강연 등 전 직원이 다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전 직원의 80% 이상이 참여한 상황실 근무를 통하여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번 을지연습은 전 직원들의 국가 보안의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 김구섭 원장의 안보강연